

전문건설사 연평균 계약액 15억대에서 정체

기사입력 2012-02-08 14:53:30

폰트 + -



정책연, 전체 계약액 늘어도 업체 증가로 상쇄

전문건설업체의 연간 평균 수주액이 15억원 내외에서 정체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업체의 계약 총액은 늘었지만 업체 수의 증가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경기 변동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1곳당 평균 계약액은 2010년 15억2000만원으로 전년(15억5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줄었다.

업체당 계약액은 2001년 11억2000만원에서 2002년 13억4000만원, 2003년 14억7000만원, 2004년 15억1000만원으로 계속 늘었지만 2005년(14억1000만원)과 2006년(13억9000만원)에 주춤한 후 2007년(14억5000만원) 상승세를 되찾았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는 추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5억5000만원으로 정점을 친 후 2009년 계약액은 동일했고 2010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주된 원인은 신규 등록업체의 급증세 탓이다. 업체당 계약액이 감소한 2010년만 해도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총 계약액은 7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8%가 늘었기 때문이다.

박선구 연구원은 "1990년~2010년까지 전문건설업종의 연평균 계약액 성장률이 11.8%인 반면 같은 기간 업체 수 증가률이 11.7%에 달해 업체당 계약액은 1990년대와 다를 바가 없어 성장 한계에 도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사당 보유면허수가 1.47개인 점까지 고려하면 보유 면허당 계약액은 불과 10억4000만원(2010년)에 그치고 앞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전문업체 내 양극화도 심화하는 추세로 추정됐다. 공사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공사 기준의 건당 평균액은 2004년(2억2040만원), 2005년(2억6330만원), 2006년(2억7180만원), 2007년(2억8800만원), 2008년(3억3620만원), 2009년(3억5250만원), 2010년(3억7430만원)까지 줄곧 불어났다.

전문공사의 덩어리가 커지면 개별 전문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줄고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설산업의 성장률, 투자, 수주, 고용 등의 지표가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전문업체별 계약액은 정체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별 건설사 부실 및 부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올해 시도회별로 받고 있는 기성실적만 해도 전년보다 더 줄어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라며 "동반성장 부문의 획기적 정책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문업계의 도미노식 경영위기가 불가피하며 작년 12월 한 달 간만 해도 부도, 폐업, 등록말소 건수가 100%, 79.7%, 110.7%씩 폭증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